

# 우리나라 옛 조형의 의미

(4)

宋 旼 求  
송민구건축연구소

## ① 평면의 비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무량수전은 측면 38.20척, 정면 61.90척으로서 비례가 1 : 1.62인 완벽한 황금분할비를 이루고 있다. 그 주위를 폭 7.70척으로 기단이 축조되어 있는데 기단의 폭이 7.70척으로 되어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된다. (그림 26)

7.70척을 5 배하면 38.50척으로서 측면 38.20척보다 0.30척이 크고, 또 8 배하면 61.60척으로서 정면 61.90척보다 0.30척이 작을 뿐이다. 말하자면 7.70척을 한 단위로 하여 5 : 8의 비율로 건축물의 규모와 조화를 이루도록 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5 : 8이라는 비는 황금분할비의 근사값의 하나라고 지적한 바 있거니와 그들 수가 지니고 있는 의미를 다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5는 오황극(五皇極)으로서 모든 도리의 근본을 이루는 대중(大中)의 도(道)를 뜻한다. 8은 유의 모체인 무, 즉 태극에서 파생하여 양의(兩義), 사상(四象), 팔괘(八卦)로 분기한 바로 팔괘의 의미를 지닌다.

그렇다고 한다면, 황금분할비는 그러한 동양의 고대사상으로서 삼라만상의 모든 진리를 가르치는 웅장한 사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된다. 사실 그러한 의미가 부가되어 비전되어 왔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기단의 전체 크기의 비례는 7 : 10이다. 그것의 절반으로서 7 : 5는 1 : 1.40로서  $1 : \sqrt{2} = 1 : 1.414 \dots$ 에 극히 가까운 비를 이룬다. 다시 말하여 정 4각형의 한 변과 대각선의 길이의 비이며, 3재(三才)에서 인과 천 또는 지와 천의 비인 것이다. 이렇듯 기단 하나에서만 하더라도 통사적 코드는 황금분할비를 내포한  $\sqrt{2}$  구형으로서 복합된 의미적 코드를 지니고 또 선묘가 석룡(石龍)으로 변하여 무량수전 밑에 묻혀 있다는 전설도 함께 간직하고 있어 그곳을 찾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슴을 설레이게 한다.

그 위에 아름답게 오랜 세월을 서 있는 무량수전은 그림 27·28에서 알 수 있듯이 황금분할비의 특질을 유감없이 이용하고 있다. 즉, 정 4각형 ABCH, EDCJ, EFGL, GHIN, IJKO, KLMP 등이 서로 접하고 회전하면서 점차로 크기가 축소되어 간다. 그리하여 불상의 좌대의 크기와 어떤 관련이 있게 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 북측 중앙의 출입문이 있는 부분의 외부 하인방에는 그림 29와 같은 목재 장식물이 붙어 있다. 그 신방목(信枋木)의 곡선은 앞에서 설명하였던 황금분할비의 특질의 하나로서 선화와 성장의 곡선이다. 그림 30은 그것을 분석한 것인데 이러한 사

실들을 미루어 보아 무량수전을 조영한 법사 또는 장인은 분명히 황금분할비를 완전히 터득하고 있었던 것으로 믿어진다.

평면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것이 감추어져 있음을 알게 된다. 평면구성의 기본이 되는 것은 AB 경간 18.00척이다. AD가 24.00척이므로 BD가 30.00척이면 직각 3각형 ABD는 3 : 4 : 5의 신성불가침의 직각 3각형으로서 정확한 직각을 구성하게 된다. (그림 31)

구형 EFGH는 불상의 좌대의 크기이며, EF는 18.00척 FG는 9.00척으로서 비례는 1 : 2이며 천의 수와 지의 수의 비례이다. 그것의 대각선의 절반 OH는 길이가 10.06척이 되며 단협간 DH의 길이와 거의 같은데 오차는 0.04척에 불과하다. 그리하여 구형 OPDQ는 작은 황금분할비 구형을 이루며 그것으로써 불상의 위치를 정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무릇 불교사찰건축의 규모는 불상의 크기와 조화되는 규모로 조영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공간의 크기를 정하는 데는 장인에 따라 여러가지 방법이 구사되었음이 나타난다.

예를 들면 3 : 4 : 5 직각 3각형에서 천의 수 5와 인의 수 3의 비를 택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봉정사 극락전의 경우는 황금분할비에 가까운 형태이다. 다만, 전면 38.50척 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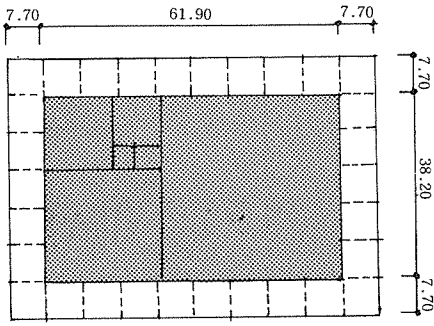


그림 -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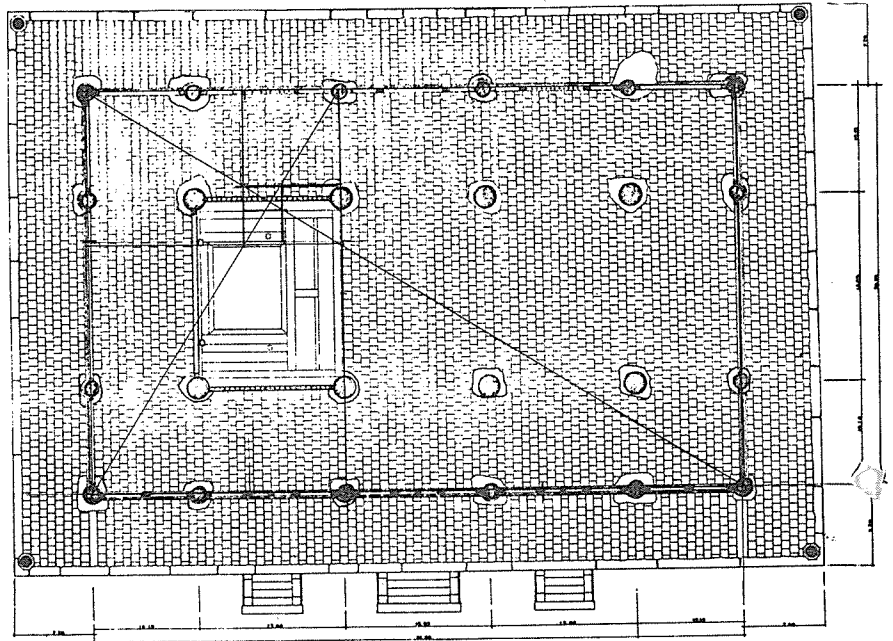


그림 - 27

면 23.10척으로서 비가 5 : 3이라 할 때 측면이 0.10척 작기는 하다. 홍국사 대응전은 전면 49.20척 측면 36.90척으로서 비가 4 : 3인 완벽한 것이다.

그렇듯 고대에 있어서는 직각구성을 기본적으로 피타고라스정리의 정수해에서 구하며 그 비를 그대로 건물규모 결정에 이용하면서 수가 지니는 의미에 집착하였다고 믿어지는 경우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다음은 그러한 경우라고 추정되는 평면의 비례를 열거하여 보았다.

- 보림사 대응전  
44.40척 : 55.10척 = 1 : 1.24 ≃ 4 : 5
- 청평사 극락전  
24.45척 : 27.35척 = 1 : 1.118 = 2 : √5 (황금분할비의 변형임)
- 환성사 대응전  
31.68척 : 39.60척 = 1 : 1.25 = 4 : 5
- 전등사 대응전  
24.80척 : 27.90척 = 1 : 1.125 = 8 : 9 (8 : 15 : 17과 관련되는 비례이며 8과 9를 더하면 17이 되고 두 수의 의미는 팔괘와 건(乾)을 나타냄)
- 범어사 대응전  
32.00척 : 38.60척 = 1 : 1.206 = 5 : 6 (5 : 12 : 13 또는 3 : 4 : 5와 관련되는 비례임)

- 송광사 국사전  
13.80척 : 36.20척 = 1 : 2.623 ≃ 5 : 13 (5 : 12 : 13의 비는 고대 Mesopotamia 지방에서 주로 쓰인 비라고 함)
- 장곡사 상대웅전  
25.50척 : 41.25척 = 1 : 1.617 (완전한 황금분할비 임)
- 화엄사 대응전  
37.50척 : 62.50척 = 1 : 1.33... = 3 : 4
- 창덕궁 인정전  
61.40척 : 81.70척 = 1 : 1.331 = 3 : 4

그러므로 무량수전은 한 차원 높은 기법을 구사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즉, 그림 31에서 AB = 18.00척, AD = 24.00척, BD = 30.00척으로서 정확한 직각을 구하고 불상의 위치를 작은 황금분할비 구형에서 정한 후 단협간 DH = 10.10척을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AD = 24.00척에서 DH = 10.10척을 감하여 HA = 13.90척으로서 기타의 기둥간격을 정하고 전체 평면의 크기를 황금분할비에 맞는 것으로 정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기단에 관해서 언급한 바 있거니와 평면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 지붕의 평면적 크기도 기단의 경우와 같이 평면의 황금분할비 구형과 같은 비례로 정해질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그림 32에서 건물 ABCD의 주위를 같은 쪽으로 지붕이 돌출할 때 지붕 EFGH와의 사이의 AE, BF, CG, DH는 45° 방향에 놓인다. 건물 ABCD와 지붕 EFGH가 닮은 꼴이 되려면 대각선 AC, BD 상으로 돌출하여야 하며 추녀의 깊이는 동일하게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여 맞배지붕은 정면과 측면의 지붕이 돌출폭이 서로 다를 수 있으나 팔작(八作) 지붕의 경우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무량수전은 지붕의 크기의 비가 기단과 같이 EF : FG = 1 : 1.402로서 √2구형이 되는 것이다.

√2구형도 실로 신비스런 성질을 지니고 있다. 그림 33에서와 같이 √2구형을 아무리 2등분하여 작게 만들어도 √2구형이 된다. 왜냐하면, 구형 BCEF는 2등분된 구형이다. 그러므로 BC : EC = 1 : √2 / 2 = 2 / √2 : 1 = √2 : 1

위와 같이 된다는 것이다. 어떤든 간에, 지붕크기가 1 : 1.402 = 5 : 7이 되는데 5 : 7이라는 비는 5 : 12 : 13연비에서 구하여진다. 즉, 5 : 12 : 13의 직각 3각형의 높이에서 밑변의 길이를 빼면 된다.

5 : 12 : 13은 누차 설명하였듯이 고대 Mesopotamia 지방에서 천문과 밀접한 관계를 지나면서 상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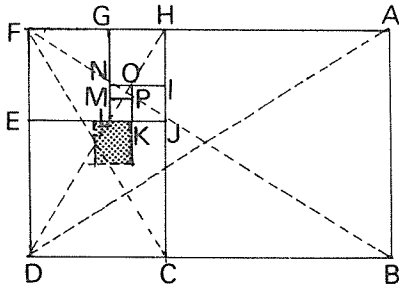


그림 -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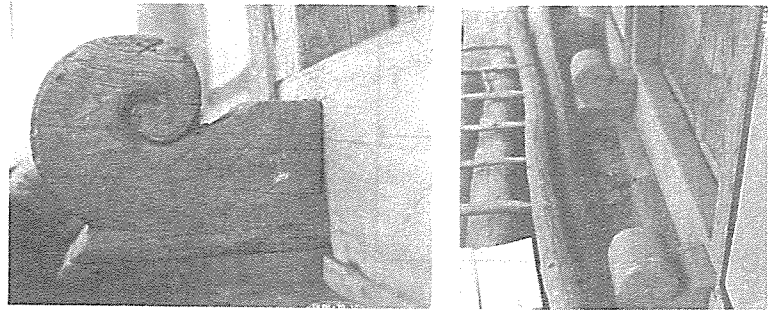


그림 -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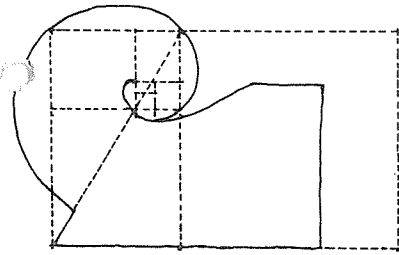


그림 -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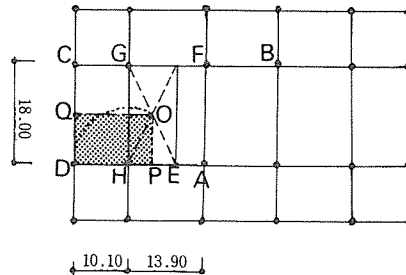


그림 -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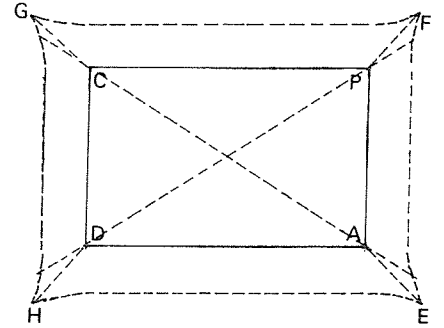


그림 - 32

고 한다.

만일에 5 : 12 : 13의 이용의 관습이 불교의 전파의 경로를 따라 인도·아프가니스탄·Silk Road를 거쳐 전래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옛 문화를 바라다 보는 시야는 더욱 넓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 ② 내부공간의 형성

다른 사찰건축과는 달리 불상은 서쪽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극락정토라는 것은 서쪽 10만억의 불토(仏土)를 지난 곳에 있다는데 그러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서쪽 멀리 선묘가 바다에 몸을 던진 등주를 머리에서 지을 수가 없다.

보 높이 18.00척 기둥간격 18.00척으로서 대략 정 4 각형 속에 불상과 불단이 자리잡게 되는데, 동쪽 끝으로 부터 두번째 기둥에서 불상까지의 거리는 기둥간격 18.00척의 두 배의 거리로 공간이 구성되어 있다.

고주(高柱)의 높이는 14.56척인데 14.56척은  $9 \text{ 척} \times 1.618 = 14.5623 \text{ 척}$ 으로서 불단의 크기에서 황금분할비로 완전무결하게 유도된 높이이다. 평주(平柱)의 높이 10.86척은 고주의 높이의  $1/4$ 이 낮은 높이이다. 계산치는  $14.56 - 3.62 = 10.92 \text{ 척}$ 이나 오차는 불과 0.06척의 차밖에 나지 않는다.

평주가 고주의 높이의  $1/4$  차가 나는 그 부분에 후술하겠으나 실로 오

묘한 주심포(柱心包)의 공포(椽包)가 짜여져 있다.

그러므로 기둥간격·기둥높이·공포·평면의 크기 등이 전부 불상의 좌대를 기준으로 하여 황금분할비에서 유도된 크기로 내부공간이 구성되어 지금의 우리들로 하여금 놀라움을 금할 수 없게 한다. 마치 현대건축의 거장 Le Corbusier의 Le Modulor의 기법을 약 600년 전에 우리들 조상은 구사하였기 때문이다.

단면구성의 기본적인 구상은 그림 34와 같다고 생각된다. 정 3 각형 ABC 속에 정 4 각형 DEFG가 내접하여 정 4 각형의 1 변이 18.00척일 때 BE 또는 FC, 즉 단협간은 계산상으로는 10.36척이 되며 실측 결과는 10.10척이다. 지붕을 구성하는 3 각형 AHI의  $\angle A$ 는  $120^\circ$ 이다.  $120^\circ$ 라는 것은 정 6 각형의 내각의 크기이며 원과 직결되는 도형이다. 원은 윤회(輪廻)사상을 상징하는 도형으로서 불교예술의 바탕에는 어딘가에 내재하고 있다.

정 4 각형의 중심을 원의 중심으로 하여 그림 35에서와 같이 원을 그리면 변화 속에 어떤 질서를 느끼게 한다.

한편 그림 36에서 알 수 있듯이 팔작지붕의 형태의 구성은 기본적으로는 맞배지붕 주위에 차양을 달아 낸 남방계 건축이 발달한 것이라는 것이

일본 학자들간에서 정리되어 온 설이다. 말하자면 그림 36의 구형 ABCD가 맞배지붕이고 구형 EFGH가 차양을 주위에 달아 낸 형태에 해당하는 것이다. 구형 ABCD는 평면에서 단협간을  $1/2$  축소한 크기이며, 구형 EFGH는 단협간의 폭 10.10척을 더한 크기이다. 이에서 AB와 BC의 비는  $28.10 \text{ 척} : 51.80 \text{ 척} = 1 : 1.843 = 1 : \left( \frac{1 + \sqrt{5} + \sqrt{5}}{2} + \frac{\sqrt{5}}{10} \right)$ 이며 황금분할비의 하나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다. EF:FG=48.30척:72.00척=1:1.491=2:3이며 균형이 잘 이루어져 있다. 그러한 기본적인 구조와 형태로써 지붕마루 끝이 11.82척까지 돌출하여 고건축의 가장 지배적인 형태인 지붕의 모양이 가다듬어져 다음과 같은 비례의 형태를 이루어 놓았다.

### ③ 입면의 비례

무량수전은 기둥의 높이가 중앙에서 끝으로 감에 따라 점차로 높아지는 것이 특징적이다. 그리하여 도리·창방 등이 처마곡선과 상응하여 경사져서 모서리의 기둥다음의 기둥의 높이는 실측치가 11.22척이 되며, 네 모서리의 기둥은 약 11.82척이 된다. 이 네 모서리의 기둥높이가 입면의 비례의 기본을 이루고 있으며, 그 치밀한 계획은 실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11.82척이라고 하는 것은 고주(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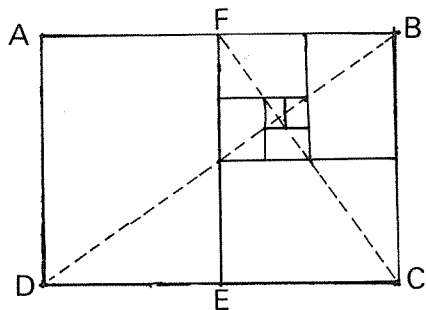


그림 -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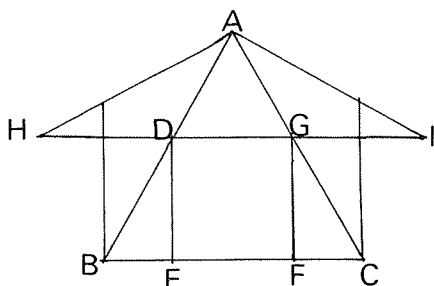


그림 - 34

柱)의 높이 14.56척의 1/2에 황금분할비 1.618을 곱한 값에 해당하며, 오차는 0.04척에 불과하다. 고주의 높이 14.56척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불상의 좌대의 폭 9.00척에 1.618을 곱한 값이므로 모서리 기둥의 높이도 역시 그것과 연관된 치수이다.

그림 37에서와 같이 모서리 기둥의 높이의 3배가 건물의 높이가 되며, 지붕끝 또한 중심에서 기둥높이에 해당하는만큼 돌출하였다. 그리하여 처마가 현수곡선을 그리며 높이 올라간 끝이 또한 11.82척에 황금분할비 1.618을 곱한 19.12척의 높이에 해당한다. 팔작지붕은 모서리 기둥의 2배의 높이에서 형성되어 완벽한 비례 감각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한편 정면은 61.90척 측면은 38.20척인데, 처마끝 높이의 2배 또는 모서리의 기둥을 1번으로 하는 황금분할비구형을 2개 연결한 폭은 38.25척으로서 오차가 0.05척인 측면의 크기와 일치한다. 그림 38에서 구형 ABCD 및 BEFC가 그것이다. 정면은 11.82척을 1번으로 하는 정 4각형 2개를 중앙에 또 11.82척을 1번으로 하는 황금분할비 구형을 양측에 배치하였을 때의 폭은 61.88척으로서 정면의 실측치보다 0.02척이 작은 것으로서 정면의 크기와 일치한다. 그림 38에서 황금분할비구형 ABCD 및 EFGH와 정 4각형 CDIJ 및 IJEF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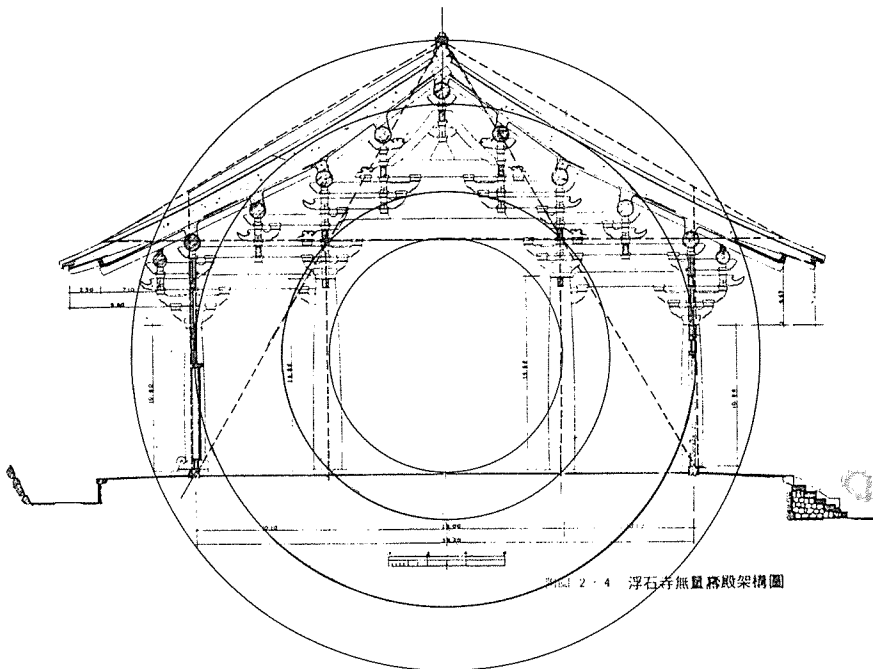


그림 - 35

그것이다.

앞에서 말한 바 처마끝은 황금분할비 구형 AKLM에서 높이·기타의 구성을 알 수 있다. 황금분할비구형 NOPQ에서는 용마루·지붕마루 등의 구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공간의 구성이 철두철미 하거나 공포(拱包)의 도학적(圖學的) 구성은 분석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욱 놀라게 한다.

공포는 그 양식이 주심포계(柱心包系)와 다포계(多包系)로 구분되나 같은 계열 속에서도 여러가지 형태가 있다. 말하자면 공포의 외각이 직선적으로 변화한다든가, 안으로 굽어진다든가, 밖으로 굽어지는 세가지 형태가 있는데, 유독 무량수전의 경우는 두공부분은 완전무결한 타원 속에 내접한다.

그림 39는 고주의 경우의 공포와 타원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점 O는 타원의 중심, 점A는 정점, 점B 및 C는 축점으로서  $OA=3.71$ 척,  $OB=4.94$ 척,  $AB=6.18$ 척으로써 타원이 이루어졌다. 다시 말하면 3각형 ABO 또는 ACO는 3 : 4 : 5의 직각 3각형이다. OA, OB, AB 등의 길이는 평주와 고주의 높이에 관계되는 길이라고 생각된다. 바닥이 다소 경사가 저서 평주와 고주의 높이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불단이 있는 부분의 고주로서 얇은 것의 높이는 14.96척이다.

이것의 1/3은 4.99척으로서 OB와 0.05척의 차에 불과하다. 평주는 11.12척으로서 이것의 1/3은 3.71척이므로 OA의 길이와 일치한다. 그러므로 AB는 평주를 5/9한 길이로서 6.18척이 된다.

한편, 타원위의 임의의 점A'와 축점 B 및 C와 연결한 A'B 및 A'C의 길이의 합계는 A'점을 타원위 다른 어느점에 취하여도 AB와 AC의 길이의 합계와 같으며 변하지 않는다. 그러한 기법을 구사한 것은 아마도 직각 3각형의 빗변인 AB 및 AC는 3개의 천에 해당하는 것이며 두개의 축점 말하자면 음양의 극에서의 길이의 합계가 불변이라는 의미론적 해석으로써 도상적(圖像的, Iconographic)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임의의 점A'를 이동시키면서 축점B 및 C와 선을 연결시키면 그림 39에서와 같이 가장 장식적인 공포의 짜임새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믿어진다. 또 그림 40은 공포가 정 4각형 및 황금분할비구형의 비례 속에서 짜여진 것을 나타낸 것이다. 정사각형의 1번 AB는 실측치가 5.95척이며, BC는 실측치가 5.90척으로서 오차가 0.05척밖에 안된다. 5.95척이라는 것은 타원의 단축  $AO=3.71$ 척에 1.618을 곱한 6.00척보다 0.05척이 작다. 그러한 정사각형 ABCD를 2등분하는 선 FG 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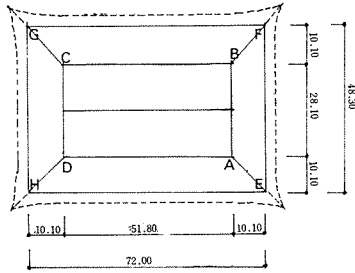


그림 -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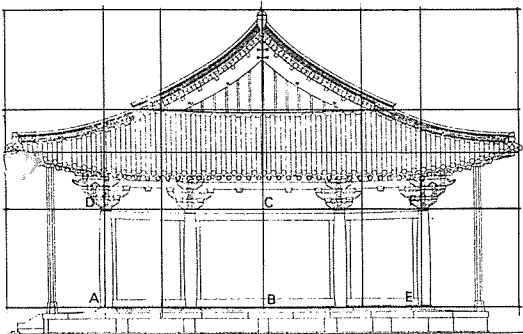


그림 -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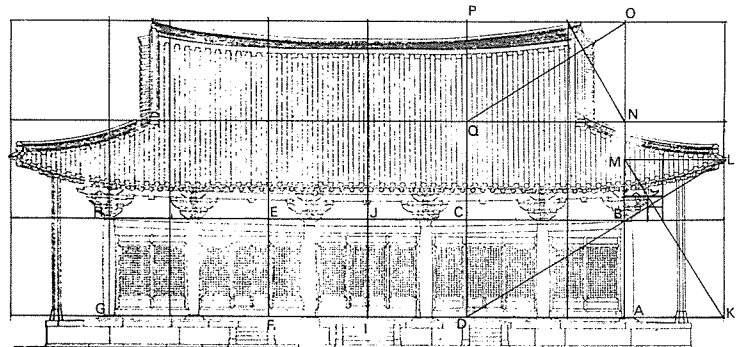


그림 - 38

특이한 단면의 모양을 지닌 큰 보의 저변이 놓인다. 큰보의 측면이 곡선은 역시 3굴법의 곡선 또는 황도의 곡선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40에서 AB의 1/2인 EF를 1 변으로 하는 황금분할비구형 EFGH를 작도하면  $EH=5.95 \times 1.618 \times 0.5 = 4.81$ 척으로서 단장혀(短長舌)의 길이의 실측치 4.64척과 비교하면 0.17척이 크다.

황금분할비구형 EFGH 속에 그것의 특질에 따른 정 4각형과 대각선등을 작도하면 굽소로(굽小累), 침차(簷遮), 뜯창방( 뜯昌枋) 등의 크기·위치 등이 잘 일치한다. 다만, 단장혀의 길이가 4.64척으로서 완전히 일치하지 않은 것은 의장의 목적보다 구조상의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된다. 왜냐 하면, 기둥간격 13.90척을 1/3하면 4.633척으로서 오차는 0.007척에 불과하다. 이상은 실내에서의 공포의 짜임새에 관한 것이며, 외부 또한 같은 이치이다. (그림 41)

외부에서의 단장혀의 길이는 실측치가 6.60척으로서 그의 절반인 3.30척이 기둥간격 13.90척의 약 1/4을 지지하므로 구조적으로 안정된 길이다. 그러한 단장혀의 길이의 차는 외목도리의 직경이 1.35척과 1.10척으로서 지지하는 하중의 크고 작음을 생각한 듯 하다.

그렇듯 정교한 기법은 도대체 어떻

게 전승된 것일까 하는 의문은 쉽사리 풀리지 않는다. 하나의 가설을 세워 본다면,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황금분할비구형과 정 4각형을 조합하여 조형의 크기를 정하는 수법은 고대 인도의 석굴사원에 많이 나타난다. 비단 석굴사원만이 그러하였던 것은 아니겠으나 그와 비교하는 것은 다른 것에 비하여 원형이 잘 남아있고 우리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림 42는 그러한 예를 분석하여 본 것이다. 또, 우리나라 불교예술에 한해서는 인도의 불교예술의 강한 영향을 부인할 수는 없다. 석굴암의 경우에도 그러한 특징을 엿볼 수 있는데 후술하겠다.

#### ④ 배치에 관해서

불교는 크게 나누어서 소승불교(小乘佛敎)와 대승불교(大乘佛敎)로 나누어진다. 소승불교는 전통적·보수적 불교로서 오직 석존 한분만을 불타(佛陀: 진리를 깨달은 자)로 모시는데 대해 대승불교는 모든 곳에 불(佛) 또는 여래(如來)가 있으며, 석존은 그 중의 한분이고 많은 부처님과 보살님이 가호를 구하여 그 자비의 힘으로써 중생이 구하여진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소승불교는 사리신앙(舍利信仰)을 근본으로 하여 Ceylon,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하여 전파되고, 서북 인도를 중심으로 한 대승불교는 다수의 불상을

만들었으며 서역을 거쳐 중국·우리나라로 전하여진 북전불교(北傳佛敎)가 되었다.

석존이 입멸(入滅)한후 그의 유골은 화장되어 불사리(佛舍利)를 8개국의 왕에게 분골하여 Stupa에 묻게 되었는데 Stupa가 탑의 원형이 된 것이다.

한편, 대승불교에서와 같이 많은 부처님을 인정하는 사상은 많은 불상과 불화(佛畵)를 안치할 법당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므로 불교사찰의 배치는 탑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에서 탑과 법당이 병존하는 신앙으로 또 이에서 법당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으로 변천하여 그에따라 배치가 변하게 된다. 불국사의 경우와 같이 대웅전을 중심으로 하여 좌우에 석가탑과 다보탑이 있는 것은 법당 중심의 건물배치방법으로서 강한 대승불교의 신앙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한 배치방법의 예로서 사천왕사(四天王寺), 망덕사(望德寺), 감은사(感恩寺), 경주 천군리사지(千軍里寺跡) 등이 있다.

이들 사찰의 회랑의 장단변의 비 또한 피타고라스정리의 정수해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예를 들면

#### ● 사천왕사

남북 300척=5×60척

동서 240척=4×60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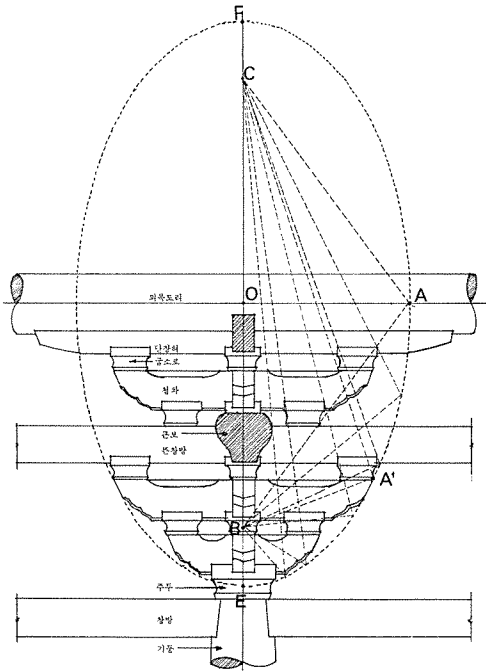


그림 -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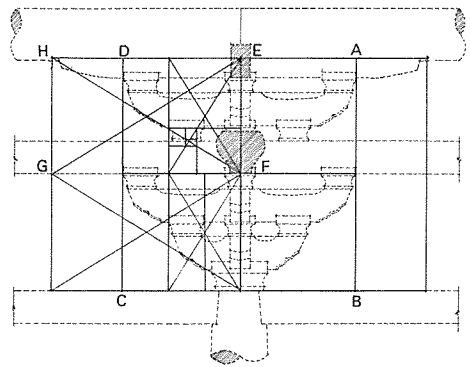


그림 -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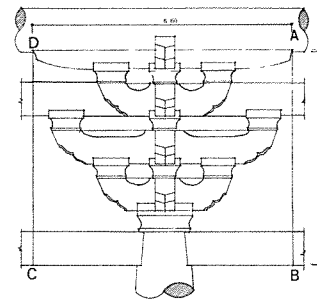


그림 - 41

(3 : 4 : 5에서 구한 것임)

● 감은사

남북 280척=7×4×10척

동서 250척=25×10척

(7 : 24 : 25에서 구한 것임)

● 불국사

남북 215척=5×43척

동서 172척=3×43척

● 경주 천군리 폐사

남북 260척=13×20척

동서 200척=5×2×20척

(5 : 12 : 13에서 구한 것임)

이상과 같다.

기타의 경우는 탑을 전면에 배치하고 뒤에 대웅전을 배치하는 말하자면 법당과 탑이 병존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말하자면 대승과 소승의 사상이 혼재하는 형식이다.

원래 사찰이라는 것은 지금의 학교와 같은 것으로서 불교를 공부하기 위한 시설로 강당·경장(經藏)·종루·식당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한편, 불타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의 지혜로써 고뇌를 초월한다는 깨달음을 얻어야 하는 것이므로 자기 스스로의 힘 이외의 타력에 의존하는 것은 금하여졌으며 우상숭배도 그 하나로서 금하여졌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타의 입멸후 사리를 숭배하게 되면서 많은 상징적인 조형물과 건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건물배치에 있어서 축선을 중심으로 하여 엄격한 좌우대칭을 지키는 것과 달리 불규칙한 배치방법은 여러모에서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부석사의 경우 의상대사는 화엄종 개종조(華嚴宗開宗祖)로서 오진(悟眞), 지도(智道), 표훈(表訓), 진정(眞定), 진장(眞藏), 도융(道融), 양원(良円), 상원(相願), 능인(能人), 의적(義寂) 등 10성제자(十聖弟子)를 낳게 하였다. 말하자면 수도장으로서 가장 으뜸가는 제자들을 양성한 곳이라는 것이다.

그러한 사찰 또는 수도장은 평지에 있지 않을 것이며, 속세와 먼 산중에 있게 마련이다. 산중에 자리잡기에는 풍수지리설을 따르는 것이 어쩔 수 없는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풍수지리설에서의 이상적인 곳은 구하기가 지극히 어려울 것이되 기본적으로 배경은 높고 소위 좌청룡 우백호는 그보다 낮으며 앞이 트이는 동시에 반드시 그 앞에는 내(川)가 흘러야 한다.

부석사의 배경이 태백산맥의 불길 같은 연봉의 계속이라면, 남쪽은 구릉지대로서 오행의 화생토(火生土)에 해당하는 상생격(相生格)의 산세에다 일주문(一柱門)을 들어서기 전에 동에서 서로 흐르는 계곡의 내가 있어 소위 풍수지리설에서 말하는 명당자리에 부석사는 자리잡고 있다.

인도에서 불교를 포교하기 위하여

브라마교의 여러 신의 조각을 장식물에 썼던 것과 마찬가지로 밀교·도교의 기법 등을 두루 구사하는 까닭에 여러 가닥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그리하여 격식을 타파하는 것이 화엄종의 사상과 일치하는지도 모른다. 화엄종은 법계평등(法界平等)이라고 하여 모든 사람이 도를 닦고 불심(仏心)을 지니게 되면 모두가 불이 될 수 있다는 지극히 대중적인 사상으로 그것이 건물배치에서 격식을 타파한 하나의 요소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중국의 불교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불교가 국가의 지배체제와 결부되어 국가적 색채가 농후한 북위시대(北魏時代)와, 왕법(王法)과 불법(佛法)이 엄격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예를 들어 동진(東晉)의 혜원(慧遠)이 사문불경왕자론(沙門不敬王者論)을 편 것과 같은 남조(南朝)의 불교사상의 대립이다.

제왕과 종교는 밀접한 관계에 있었음은 물론이거니와 북위는 북방기마민족으로서 선비족(鮮卑族) 척발부(拓拔部)가 중국 북부에 일으킨 나라다. 일찌기 불교를 받아들여 유명한 대동(大同) 운강(雲岡) 석굴의 방대한 불교예술을 남겼다.

이에서는 그리이스의 초기 아이오닉양식의 기둥이라던가 기타 서방의 영향을 질게 받은 장식들을 도처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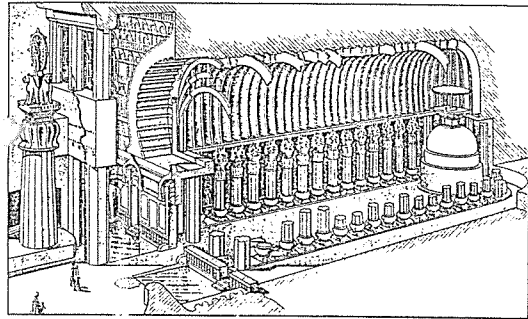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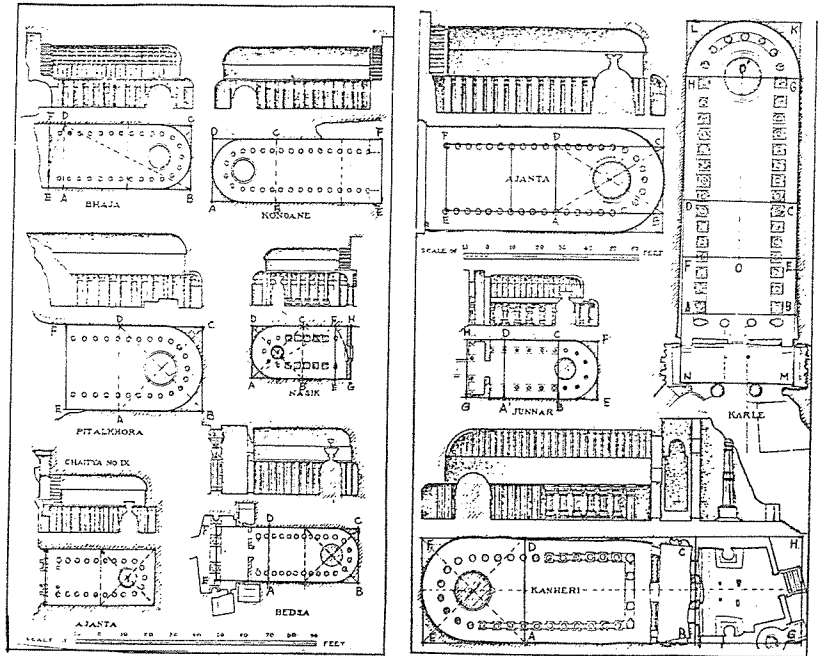


그림 - 42



사용하였다.

우리나라는 3국시대에 북위와도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까닭에 북위 말하자면 북조예술(北朝藝術)의 영향을 받게되며 불국사와 같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사찰이 건립되고 건물배치 또한 법당 중심으로서 엄격한 격식에 따르게 된 것이다. 부석사는 그와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불교사상의 영향이라고 본 것이다.

또 한가지는 조형에 선적(禪的) 요소를 지니게 하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며, 선의 목적은 이에 따라서 성불(成佛)하는 데 있다. 성불한다는 것은 불성을 지닌 인간이 그 맑고 깨끗하였던 것이 점차로 때묻게 되어 처음의 정체를 흐리게 하기 때문에 선의 방법으로서 처음의 정체로 돌이켜 보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다.

선에는 1,700여의 공안(公案)이 있으며, 이 중에서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무(無)자라고 한다. 공안이라는 것은 공부(公府)의 안독(案牘)이라는 뜻이며, 마치 정부의 법률로 비유되고, 어떤 사사로운 정설로써도 이를 굽힐 수 없으며 그 정한대로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로부터 선종의 조사스님들이 정한 법문을 공안이라 한다.

예를 들어 세존념화(世尊拈花)란 공간은 달마와 양무제와의 문답, 그리고 달마와 혜가와의 문답을 엮은 것이며, 후세에 와서 공간으로 쓰였다고 한다. 공간은 문답을 요하는 형식을 취하며, 모든 공간은 의문으로 되어 있어 그 의문을 풀려는 데에서 선의 노력이 시작이 된다. 예를 들어 '無'자를 주야로 외우며 '無'란 어떤 것인가 하고 그에 대한 의문을 일으킨다. 그럼으로써 자신을 망각의 경지에 이끌게 된다. 그리하여 공간과 한 몸이 된 때를 견성(見性)이라고도 하고 각오(覺悟)라고도 하고 도통(道通)이라고도 하고 깨침이라고도 한다.

한편, 어떤 일정한 법칙아래 인간의 행동을 계속 규제하면, 대상물을 정확히 판단하는 능력과 의식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가 있는 공간에 있어서의 척도의 인식과 판단마저 무화(無化)되는 현상에 빠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불교의식의 하나로 미명에 기단이라든가 탑의 주위를 몇회고 돌며 염불을 외우고 목탁을 치는 행동만으로도 자아를 의식외의 세계로 이끌어 가게 된다.

그러므로 건축물에 있어서 동일물의 반복이 계속되는 것도 의식의 무화를 유도하는 수법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또 공간의 변형으로서 이화감을 품게 하는 것도 선이 요구하는 무

아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인데, 다시 말하여 의문을 던진다는가 의문을 품게 하는 특징적인 형태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개체를 무화하는 수법이라고 볼 수 있다.

부석사의 경우 대석단은 동지일출의 방향인 동남동 30°로 쌓여졌다. 서쪽으로는 멀리 등주로 이를 것이리라. 석단이 끝나고 종루 앞의 계단으로 부터는 정남을 향하게 되며, 종루와 무량수전이 이루는 축선은 엇비슷하게 보이게 된다.

그러한 기법은 비단 부석사의 경우 뿐이 아니라 의상대사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십성제자들이 이룬 10대사찰 해인사(海印寺), 범어사(梵魚寺), 화엄사(華嚴寺) 등 전부가 자연과 조화하면서 불규칙한 배치기법을 구사하고 있다. 그러한 변화 중에서도 규칙성을 지닌 배치를 하는데 필경 그것은 불교의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렇듯 배치에 있어서만도 1차적 기능은 종교적 이용에 목적이 있겠으나 그 이면에는 복합된 의미를 지닌 2차적 기능이 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